

3월23일(월)

제목: 예수님 앞에 잘 서셨어요.

사도신경/ 찬송:88장/요한복음4:1-26 (1)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어느 우물가에 물 길으러 나온 한 여인에게 물 한잔을 청하셨다.(7절) 이 때 예수님은 피곤하며 목마른 모습을 하고 계셨다.(6절) 이 예수 앞에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한 여인이 서 있다.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동안 다섯 남편과 살았고 지금 남편과도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부부사이가 아닌 듯 보이는 여인이었다.(18절) 그동안 남편 다섯을 둔 여자! 사연 많고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을 누가 감히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영혼의 참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깨끗하고 흠 없는 도덕가이겠는가? 종교인이겠는가? 정치인이겠는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뇌를 같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지상의 삶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외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것이다. 여기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사연 많고 문제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도 있다. 이 여인과 나는 참으로 예수님 앞에 잘 선 것이다.

3월24일(화)

제목: 생수 앞에서 맹물을 찾는 여인

사도신경/찬송:94장/요한복음4:1-26 (2)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선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0절)라고 말했다. 이에 응수하여 이 여인은 그릇도 없고 샘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반문했다.(11절) 이 여인은 ‘물’ 을 문자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또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설명했지만(13-14절) 여자는 여전히 그것을 문자적인 맹물로 생각했다.(15절) 여인은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서 맹물만 찾고 있다. 여인은 궁극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답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모든 사람 속에도 궁극적인 것에 관한 갈증이 있다. 원인 모를 불안, 무엇인가 부족한 것,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에, 자식에, 학문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수가 아닌 맹물만 찾는 격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수가 앞에 있어도 맹물만 들이킨다. 생수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다른 것을 찾는다. 인생의 방향에 중지부를 찍으려면 생수를 마셔야 한다. 즉 예수님을 마셔야 한다.

3월25일(수)

제목: 교회 선택보다 신령과 진정을..

사도신경/ 찬송:403장/요한복음4:1-26 (3)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마주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다.(16절)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죄 성을 들추어내기 위함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고 시작한다.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실패라고 선포하고 시작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 절망을 느끼고 그 다음 하나님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 여인도 자신의 부도덕함에 늘 절망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늘 궁금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20절) 예수님께서 이에 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고 어느 곳에서든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다.(21-24절) 우리는 어떤 교회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 늘 고민한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을 소유하고 예배에 나서느냐는 것이다. (24절)

3월26일(목)

제목: 소명을 발견한 여인

사도신경/찬송:174장/요한복음4:27-29

메시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28절)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29절)고 소리쳤다. 메시아를 만난 그녀는 물동이를 내 팽개쳤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찾은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시급한 것은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메시아를 선포했다. 소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여인의 현실적인 필요가 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물’ 을 찾는다. 이것은 욕망과 욕구의 물이다. 그러나 이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인생의 갈증만 더해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자에게는 목마름이 없다. 그는 항상 시원하다. “내가 이 부름 때문에 이런 인생과정을 거치게 되었구나” 발견하고 나면 그 동안 막혔던 자기 인생이 비밀이 풀린다. 그 동안의 자기 삶의 궁금증과 비밀이 모두 이해된다. 소명을 발견하면 그 때부터 상쾌한 숨을 쉴 수 있다. 반대로 소명을 찾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항상 답답하고 무겁다.

3월27일(금)

제목: 나의 봉사는 예수님의 식사입니다.

사도신경/찬송:221장/요한복음4:30-34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30절) 아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권했다.(31절) 이 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식사’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는 참 양식을 먹기 원하는데 그 참 양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34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저 사마리아 여인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에게는 전도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 저 여인의 행위가 그의 ‘참 양식’이었다. 저 여인을 보면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셨다. 제자들이 피로하고 지친 예수님이 시장하시리라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해왔지만 그는 음식을 거절하셨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봉사가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잡수시는가? 성도의 봉사를 잡수신다. 눈치보고 요령 피우는 사람은 항상 먹는 타령, 설 타령을 한다. 하나님 일에 대한 나의 충성과 봉사는 예수님이 즐기시는 ‘참 식사’이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즐거운 식사를 올리는 자가 되자.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